



요약

사실

예수와 마리아는 우리 가운데 사셨다.

양성 여정

주먹다짐으로 하지 말고...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6. . 신부와 신랑, 마리아와 요셉.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7. 하느님의 숨결인 마리아.

가족연대기

- 파티마 국제대회를 위한 홍보 비디오.

-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 세상으로부터 파티마까지.

- 2024년 파티마(포르투갈)에서 개최되는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 ADMA 리스본 지회 - 활기차고 새로워지다.

월간 기도지향

새로운 순교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예수와 마리아는 우리 가운데 사셨다

P.1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P.3

우리는 사순시기 끝자락에 와 있으며,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드마 회원으로서,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되어, 우리 구원의 뿌리인 이 위대하고 유일한 사건을 준비합니다.

P.5

P.8

돈 보스코의 ADMA회 창립(회칙 제1조)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돈 보스코가 꿈속에서 마리아께로부터 받은 가르침에 따라, 도움이신 마리아께서 가리키신 (토리노 발도코 1868년) 장소에 성전을 봉헌하고 1년 후, 돈 보스코는 **도움이신 마리아라는 명칭 아래 동정녀를 공경하는 신심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며**,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를 그 성전 안에 창립했습니다(1869년 4월 18일).”

P.10

P.10

이는 우리가 ADMA 입회지원자를 양성할 때 사용하는 규칙 해설서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P.11

무엇보다도 ‘빛을 발산하다’라는 단어는, “세상의 빛”(마태 5,14)이 되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루카 12,49)고 하신, 성체성사 안에서 모든 생명의 원천이자 정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마리아의 모성적 인도를 받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합니다.

P.11

P.12

우리가 확산시키고자 하는 빛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그 빛은 바로 부활시기에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그분의 부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께 봉헌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께 자신을 의탁하며, 그분을 본받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마리아께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므로, 우리는 마리아 신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심, “마리아를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은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요한 19,26-27) “성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세례성사로서 자녀됨의 의미를 더 잘 살 수 있고, 성모님 모성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 돈 보스코가 성모님을 자녀답게 모시고, 성모님과 늘 대화하면서,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실현했던 사랑으로, 오늘 우리도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규칙서에서는 살레시오 가족의 신원헌장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빛나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모님께서 교회의 어머니요 신자들의 도움으로서, 이 지상에서 시작하셨던 일을, 오늘도 하늘에서 계속하고 계심을 알고 있다.” 이러한 모성적이며 생생한 마리아의 현존은 우리 회의 기초이며, 하느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우리 회원들의 헌신에 영감을 불어넣는 원천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합니다. 마리아는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분이시며, 교회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녀들을 위한 은총의 중재자로서 모성적 사명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 가운데 두 분, 예수님과 마리아에게서만 구체화되었습니다! 우리들 중의 두 사람, 온 인류의 첫 열매이자 새로워진 인류의 시작인 부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여자’, 제2의 아담과 에와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본받아야 할 모델이나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 살아 있는 우리 모두의 유일하고 효과적인 목적입니다.

거룩한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레나토 발레라, ADMA 발도코 회장.
가브리엘 크루즈 신부, ADMA 발도코, 영적활성자.**

“성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자!”

양성 여정

주먹다짐으로 하지 말고...

아홉 살 어린 아이의 꿈에는 눈에 띄는 강한 움직임이 보이며, 이야기의 기억뿐 아니라 몸도 느낄 만큼 현실적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욕설을 듣고 나는 곧장 아이들 가운데로 뛰어들면서 주먹질과 고함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애썼다.’ ‘나는 잠에서 깨어났으며, 나는 멍했다. 주먹질을 한 손은 아팠고 얻어맞은 뺨은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듯했다.’

행동이 너무 충동적일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은 즉각적이며 숙고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요한이 충동적으로 반응할 때를 보면, 그는 주저하고, 두려워하며, 꺼려함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기질을 나타내는 것은 꿈만이 아닙니다. 이복 형 안토니오와의 관계에서도, 마르케리타의 장남 요셉이 아니라 막내인 그가, 1827년 2월부터 1829년 11월까지 집을 떠나, 몰리아 농장으로 보내져야 할 정도로 긴장된 상황에도 달했었다는 것은, 요한이 안토니오에게 복종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의 기질을 알게 해줍니다.

돈 보스코를 덕의 영웅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를 시성에 이르게 하는 과정의 증언들을 보면 무척 흥미롭습니다. “내가 들은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타고난 성격이 불 같고 거만하여 저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 행위를 통해 자신을 아주 많이 자제하려고 노력하여 평화롭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정도로 자신을 제어했습니다.”(Marchisio, in *Copia Publica Transumpti Processus Ordinaria*, 629r). 칼리에로 신부와 루아 신부의 증언도 이와 비슷하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의 천성은 불 같고 거만해서 저항을 견딜 수 없었으며, 누군가에게 자선을 요청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야 할 때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과 싸워야 했다.”(칼리에로, ibi 1166r); “그는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본 모습이 그의 말과 달라, 우리는 그가 분노의 폭발을 억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만일 노년기에도 그가 그런 상태였다면, 그것은 그의 젊은 시절의 성격이 얼마나 더 강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Rua, ibi 2621 r-v).

‘주먹다짐으로 하지 말고.’ 이것이 꿈에서 존귀한 남자 어른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하라는 초대입니다. 요한은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든 이 초대를 따르지 않으려고, “아버씨는 누구시죠?”라고 물으며, 그가 제안한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40년 후 쓰게 될 그의 ‘오라토리오 회고록’을 통해, 실제로 그 변화는 도덕적이거나 단순한 방법론적인 변화가 아니라, 효과 없는 것에서 효과 있는 쪽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점진적이며 유익한 일련의 교육 과정이며, 영적 걸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자신을 통제하고 교육적 관계의 천재, 그 강력한 에너지를 억압이 아닌 성장의 힘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영혼의 친구’가 되게 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내적 힘입니다. 실제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스승은 겸손하고 강하고 굳건하게 하여, 안팎으로 그에게 더 큰 임무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것은 폭력을 쓰지 않음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힘으로 바뀌는, 강렬하고 탄력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왕따를 당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승리합니다. 선으로 악을 정복합니다. 따라서 승리는 공격에 압도당하거나 두려움으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폭력에 맞서 그 폭력을 마주할 줄 아는 힘은 복음적인 품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요청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는 말은, 최고의 악이 우주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가장 풍성한 선으로 바뀌는 통로가 되는 부활절에,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이며, 마지막 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악인과 맞서”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자유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부활이 모든 역사에 미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무상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0,17~18.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은 전환과 수렴, ‘주먹다짐으로 하지 말고’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를 제시해 줌으로써, 얼마나 많은 힘이 나오게 되는지 확인시켜 줍니다.

권위는, 본래의 의미(아우제레) 대로, 사람을 성장시키는 예술이 되게 할,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며, 돈 보스코에게는 교육이 바로 그 유일한 길이라는 점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억압과 처벌에 기반한 교육 시스템을 거부하는 것은, 이제 그에게는 바다를 건너도 돌아올 수 없는 궤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건너 파타고니아에도 이 시스템을 이식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이러한 정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며, 1884년 5월 10일, 로마에서 보낸 편지에서,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청소년이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하여 진심 어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편지는 꿈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말년에 가서야 돈 보스코는, 성급했던 어린 요한이 들었던 대답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초창기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관상하면서, 그의 역사 안에서 두 가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역동성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동성을 억누르지 말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느리고 피곤한 길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덜 역동적이거나 덜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은 이 방향으로 나아간 교육자와 교사들입니다.

- **이 길은 큰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는 길입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바라지 말고, 씨앗만으로도, 아주 드물게 작은 씨앗이라 하더라도, 그 씨앗이 열매 맺으리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논리입니다. 교육과 복음화 사이, 자연과 은총 사이, 현재의 도전과 미래의 희망 사이에서, 인간적이면서도, 거룩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뢰와 인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힘과 일치합니다. 성인 목록에서 순교자들이 항상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청소년이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돈 보스코

앞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으로 악을 이긴 다양한 상황과 흐름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나 특정한 역사적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동시대성과 함께 우리 이전과 현재, 우리 이후의 인간 관계와도 모두 연관된 것입니다.

실비오 레지아, SDB

나자렛. 하나님의 모든 가족

6. 신부와 신랑, 마리아와 요셉

나자렛은 '아름다운 사랑의 집'이라고 불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 마리아 미사곡에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리는 특별한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서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랑으로 투명함과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에로스와 아가페가 화해할 때, 동정성과 혼인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친밀함에 겸손이 동반되어야 할 순간입니다. 결실이 순결과 모순되지 않고 순결이 결실보다 앞설 때, 대화가 하나님의 신비에 의해 침묵할 때, 공허하고 무미건조한 침묵이 아니라, 심오한 소통의 공간이 될 때입니다.

마리아의 가장 순수한 사랑을 묵상하면서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의 밝은 표징을 봅니다. 구약성경에서 유딧에게 바친 말씀인 "저토록 얼굴이 아름답고 슬기롭게 말하는 여자는 다시 없을 것이다"(유딧 11,21)는 말씀은 마리아에게도 적용됩니다. 마리아의 얼굴과 마음의 겸손하고 조용한 광채는 요셉의 얼굴을 비추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하나님 아들의 육화는, "사람의 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전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거룩하고 흠 없는"(에페 5,27)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마리아는 가장 정결한 혼인으로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드님"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움이 주는 울림은,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부부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자라게 하며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움은 원죄가 없으시기에 타고난 아름다움이고, 큰 고통을 통해서 귀하고 가치 있게 완성된 아름다움이며,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으로부터 부부들은, 집안에 마리아를 "가장 소중하게"(요한 19,27) 모심으로, 그 아름다움을 끌어내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아름답고 원죄 없으신 잉태는, 은총의 빛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름답고 동정하신 당신의 탄생, 당신의 찬란한 영광은, 우리의 형제이자 구세주이신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에 내어 주셨습니다. 가장 온순한 양의 희생과 합하여, 새로운 모성적 사명을 부여받으셨으니, 그리스도의 수난하심으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주님 부활 안에서 아름다우시며, 그분의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시는 당신은 아름다우신 여인이십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빛에 비추어 우리 시대의 관습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 준비로 실제로 당면시되던 혼전 순결이라는 섬세하고 훌륭한 주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사랑의 민감한 표현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선물하는 것이기에, 아무리 강렬한 순간이더라도 즉흥적이고 매혹적인 것은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쁨 속에서 선물로 받아들여지고, 고통 속에서도 용서로 성숙되어야 하며, 상처 입거나 지친 모든 관계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 사랑의 숭고한 순결 앞에서, 우리 시대의 의사이자 신비주의자이며 처음에는 혼인으로 신부가 되었다가, 재속회를 통해 봉헌된 여성이 된,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는, "그리스도인 배우자들은 성에 존재하는 모욕감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십자가와 그 정확의 불빛을 통해 점점 더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 있듯이 부부가 이혼하게 되고, 결혼 생활이 실패하게 되며, 자녀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순결한 혼인과 사랑

너무 자주 제시되어 온 모성적이지만 여성적이지 않은 마리아의 이미지와 부성적이지만 정력적이지 않은 요셉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찬란한 사랑의 만남을 경험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봉사하면서 서로에게 속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원죄와 그에 따른 모든 결과로 인하여, 동정성과 혼인에서 오는 관계들로, 순결한 사랑도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끄지 않으며, 오히려 불을 지피고 정화하고 강화합니다. 아드리엔은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글을 쓰면서, '상호 약속의 결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개방되는 것은, 그들의 서로를 향한 약속이, 하나님께 드린 그들 마음의 첫 자리를 뺏지 않으며, 항상 그들 마음 안에서 첫 자리를 그분께 드리게 한다' 고 설명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결한 사랑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비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고 하지 않았기에,



타협하지 않고 배우자로서의 사랑을 완성합니다. 그들의 혼인학교에서는 하느님의 사랑이 그들 부부를 성급한 판단이나 뿌리 깊은 편견으로부터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마리아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드리엔은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언어로 이를 설명합니다 - ‘마리아는 요셉에게서 자녀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순결서약처럼 마리아는, 미리 무언가를 정해야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혼인의 결정은 결코 순결에 반하는 결정이 아니었으며, 지상에서의 모습에 대한 결정도 완전한 모습에 반대되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녀는 혼인의 적절한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그녀는 멈추거나 돌아가거나 일탈하지 않고 오직 한가지 목적, 즉 모든 것에서 하느님의 뜻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죄인들과는 달리, 마리아는, 동정과 혼인에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 다.

요셉의 경우는 이와 다르며, 모든 부부는 요셉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마리아를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로 삼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었으므로, 동정을 지닌 사람으로서 혼인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이 그의 마음을 작게 하거나 얼어붙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그는 약혼으로 여인에 대한 참 사랑을 체험했으며, 미래의 신부에 대한 사랑은 한 남성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

지상의 삶에서 마리아는 여성성과 겸손 의 놀라운 조화를 이루었고, 요셉은 그녀 곁에서 남성성과 순결의 훌륭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복합성은, 일상적인 언어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느님께서는, 그의 자손과 후손들 가운데서, 신비로운 사건, 악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오는 은총의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이미 젊은 남성들을 순결하게 대하는 법을 알고 있고, 젊은 남성들은

애정 어린 인내심으로 그들의 여성들이 순결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젊은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동정성은 남성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고, 여성의 부드러움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심장을 분노하게도 하지 않고, 얼음처럼 차갑게 하지도 않으며, 보셋이 말하듯이 “더 큰 충만함과 자유를 줍니다.” 사실, 이기적이거나 신경질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동정의 순결은 부부의 사랑을 촉진시켜 주며 성장시켜 줍니다. 사랑의 감정을 거룩한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그 감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단순하고 고귀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사랑에 있어서 -아드리엔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 여성은 정열적인 총동의 조용한 교육자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을 순결하게 했고, 그녀의 미소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순결하게 했으며, 사제들이 이 세상에서 정열적인 순결의 신비를 쉽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므로, 사제들은 마리아에게 빛을 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이 활력과 추진력, 열정을 가지고, 부드러움의 표현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했습니다. 요셉의 시선은 마리아의 시선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었고, 그의 감각은 승화되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빛나는 그분의 몸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우자에게 말없는 불쾌감을 갖고, 분노도 느끼므로, (마치 하늘이 주신 여자를 빼앗긴 것처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된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 다. 하느님을 향한 그녀의 전적인 지향이 요셉에 대한 애정을 약화시키지 않았고, 동정의 결혼 방식이 그녀를 “집에서 별거”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 다. 오히려 요셉과의 결혼은 미래 교회의 혼인에 대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드리엔은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동행하여 봉헌의 최고 절정에 도달했으며, 그곳에서 완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라면, 그녀는 요셉의 곁에서 신부로 머무는 동안, 이 높은 사명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셉의 포기를 원한이나 슬픔의 체념, 실망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폴란드의 위대한 소설가 안도브락친스키는 그의 아름다운 저서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소녀에게서 뿜어져 나온 순수함은 악에 대한 모든 생각이 형성되기도 전에 죽어 버렸습니다. 이 소녀에게 얼마나 한 단순함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토록 큰 사랑에 포기 보답할 수 있다는 것은 육체의 욕구보다 더 강한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말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으로 끊임없이 만났습니다. '성적인 친교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깊은 영적 소통이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부부 사이는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혼인의 대화와 침묵

마리아와 요셉의 특별한 결혼 생활에 비추어 볼 때, 순결과 혼인의 합의는 모든 배우자에게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그것은 **대화**와 **침묵** 사이의 **조화 추구**입니다. 사랑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필요로 하며, 이 두 가지로부터 자양분을 얻습니다. **침묵은 말씀의 자궁이고 말씀은 침묵의 열매입니다.** 말이 없는 침묵은 무균 상태이고 침묵이 없는 말은 수다입니다. **진정한 침묵은 진실을 기다리는 것이고, 진정한 말은 진실을 말합니다.** 말과 침묵의 서로 다름과 관련이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교환과 같은 심오한 표현입니다. 남자는 주로 말을 많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침묵 속에서 문제를 처리하고,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여성에게 전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성은 주로 언어의 자궁으로서 침묵을 지키지만,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말로 표현하고 털어놓음으로써, 그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대체적으로 자신이 장황하게 말하는 것을 억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올바른 결혼생활은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남성들은 여성에게서 친절하고 웃는 얼굴을 찾고, 모든 여성들은 남성으로부터 진실하고 강렬한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자렛의 침묵을 보는 것이 혼인한 부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순수하게 모든 것을 한번에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것은 항상 자신이 옳거나 반대로 틀렸다는 마음 속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설명하려**는 전형적인 **여성의 욕망** 이거나, 자신을 설명하지 않거나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옳고 싶어하는 남성의 욕망** 입니다. 그러므로 남성은 여성의 감정적 소통을 이해하려고 힘쓰고, 여성은 남성의 이성적 종합을 이해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반면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의 유대감은 베일에 싸여 있고 신비를 동반합니다'** 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순간, 그녀에게는 그녀 자신보다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사실을 요셉에게 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오해를 받거나

오해를 받는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하느님과 요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그에게 내보입니다. 장 기통은 이 침묵을 통해 영웅적인 면모를 발견합니다. '요셉 앞에서의 혼인에 관한 침묵은, 사랑하는 사람의 의심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영웅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행동을 잘한다 해도, 이해받지 못함은 늘 함께 진행되는 일이며, 이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신혼부부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이해가 이해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해'는 '포용'을 의미하며, 신혼부부들은 포용이 많은 것을 말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고,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하고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것까지도 말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아드리엔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마리아의 침묵은 요셉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하느님께서 일하실 때, 친밀감은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과 직접 비밀을 공유했으므로 침묵합니다. 그녀는 이 신비가 온 교회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침묵합니다. 이 순간 요셉과 그것을 나누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아드리엔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그들 각자가 하느님 앞에서 지닌 비밀을 보호해 줍니다. 그들은 손 잡고 교회에 들어가지만, 그들 각자가 고백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그들의 친밀감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 앞에서 각 배우자가 지닌 비밀은, 서로의 사랑을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고, 더 깊이 있게 하고, 더 고귀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들 서로의 완전한 헌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사랑에 새로운 활력이 충만하도록 보장해 줍니다."

로베르토 카렐리, SDB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7. 하느님의 숨결인 마리아

이 글을 읽기 전에 잠시 멈춰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부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공기가 부족하거나 나쁜 환경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대기 오염은 산업 발전의 해로운 결과 중의 하나입니다. 산소 부족은 무분별한 삼림 벌채로 인한 결과 중의 하나로, 지구의 더 넓은 지역에 피해를 입혔고, 지금도 계속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많은 질병들은 역설적이게도 선진국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서도 그 영향을 받으며, 서구의 나라들이 아무런 통제나 현실적인 처리의 가능성없이 쏟아내는 많은 폐기물들은, 우리가 호흡하는 독성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오염의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증명했습니다. 오존층에 구멍이 뚫린 것을 국제사회의 여러 나라와의 공동 노력으로, 유해 가스 발생을 줄인 덕분에, 닫힌 것처럼 보이는 ‘오존층 구멍’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성공했다면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별력과 자유를 더욱 성숙시켜 각자의 사회적 위치와 책임에 따라,** 지구가 필요로 하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공기는 하느님의 영과 자유의 상징이며, 자유로이 영을 따르려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으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항상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니코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명성과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바리사이인으로서, 율법을 공부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코데모에게는 이 모든 것은 걸치레가 아닌,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니코데모는 이미 성취한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께 끌렸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밤에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니코데모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해하시고, 성령께서 자신에게 이끌림을 허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해방을,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만, 불어오는 방향을 통제할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순수한 자유입니다. 세례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닮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갈라디안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 바오로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갈라 5,1)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의 경우, 니코데모의 경우와 같이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우, 우리를 짓누르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습관을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그분의 창조성과 사랑으로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개인적인 실패에 직면할 때, 생태계의 위기와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고통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느님에 의해 구조되고 구원받을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을 보여 준 예제키엘 예언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예제키엘 37장). 그 광경을 본 하느님은 예언자에게 “사람의 아들이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언자는 ‘주 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제키엘은 이 한 마디로 자신의 연약함과 하느님의 능력을 동시에 인정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우리도 삶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꺼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제키엘의 믿음 덕분에 하느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이, 예언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숨아, 사방에서 와 이 학살된 이들 위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하느님께서서는 마른 뼈에 생명을 회복시킴으로써 땅에서 새롭게 빛어진 아담의 콧속에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셨던 창조의 몸짓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창 2,7). 신약성경이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부활을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2고린 5,17).

마리아는 천사의 알림을 들었을 때나 엘리사벳에게 서둘러 떠나기 전에도 부모님이나 약혼자 요셉의 허락을 받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루카 1,26~39). 하느님께서 거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간의 성스러운 장소인 양심에 귀를 기울이는 불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일생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함의 날개로 날아다니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의 태중에서, 마리아의 양육으로 하느님의 아들은 숨 쉬는 법을 배우고 자유롭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 땅에서 하느님의 숨결이었고, 하느님께서 창조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데 필요한 자유와 새로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자궁에서 성령은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히 구속하신 새 사람의 살과 뼈를 함께 엮으셨습니다. 마니피캇으로 이 숨결은 노래가 되어,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시며,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느님 사랑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마드레 마자렐로는 어느 날 저녁 재봉 일을 끝내야 했고, 밤인사 후에 몇 명의 수녀들과 함께 촛불을 켜고 바느질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코스타마냐 신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 그리고 규칙준수에 대한 그의 완고함을 알기에 - 마드레는 촛불을 끄고 신부가 지나갈 때까지 수녀들에게 침묵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목적으로서의 준수 자체는 살레시오 카리스마라 일컬을 수 없으며, 규칙을 어기거나 규칙을 바꾸는 것이 하느님의 부르심과 그 영에 충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상황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애덕이 요구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십시오.**”라는 말로 마리아 도메니카는 수녀들에게 규칙보다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규칙 없이는 가족과 사회에서 공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규칙은 생명을 보호하고 번영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규칙, 관습이 사람을 죽이는 순간엔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개혁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언제나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판단, 편견, 두려움, 완고함에서 벗어나 내부적으로 더 자유로워질수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지속적으로 촉구하시는 교회와 사회의 쇠신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린다 포커, FMA

가족의 연대기

파티마 국제대회를 위한 홍보 비디오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파티마에서 열리는 제9회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https://mariaauxiliadora2024.pt>) 등록이 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살레시오 가족의 이 중요한 행사의 조직팀은 전 세계 살레시오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9개의 홍보 비디오 시리즈입니다. [해당 링크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 세상으로부터 파티마까지

지난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수도회가 조직한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살레시오 가족의 다양한 그룹을 대표하는 담당자들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 모임은 살레시오 가족 전 세계 담당자들을 위한 활성화의 일부이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살레시오 가족의 현실을 공유하고 성찰하며, 우리의 카리스마적 정체성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성찰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살레시오 가족과 청소년 사목 간의 새로운 관계를 촉진했습니다. 사명과 공동 양성을 강화하는 친교와 영성을 체험했습니다. 성찰과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열리는 제 9 차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에 살레시오 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초대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표시로 발도코에 있는 도움이신 마리아 대성당에서 각 모임에 도움이신 마리아의 작은 성모상을 가져갔는데, 이 성상은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 축복을 받고 그 지역의 아드마 회원에게 기증되었습니다. 이는 성모님 안에서 지역의 좋은 가족 구성원들을 모으는 동시에 올 여름 포르투갈 순례를 이끌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에서였습니다.

ADMA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일곱 개의 작은 성상을 파티마에 모셔와서, 마리아께서 우리를 모든 대륙의 살레시오 가족, 단일 보편 교회의 구성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으로 살도록 초대하는 친교를 상징할 수 있기를 꿈 꿉니다. “모든 살레시오 가족은 신자들의 도움이시며,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모성적 보살핌에서 탄생한 마리아의 가족이며,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그룹은 돈 보스코의 살레시오 가족 신원헌장 37조에서 이 신념을 표현” 하라고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모두 이번 대회에 참여합시다.

파티마에서 모두 만납시다.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2024년 파티마(포르투갈)

상호 연대의 정신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그룹의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연대 기금”이 토리노 프리마리아에 설립되었다.

받은 금액은 다양한 필요에 따라 쓰여지게 되며, 참가자 개인에 대한 별도의 요구는 없다.

모든 기부금은 ADMA 은행계좌로 송금

- (IBAN IT16 V030 6909 6061 0000 0130 575)

- 하거나 다음 링크

<https://www.admadonbosco.org/>의 지침을 따라 보낼 수 있다.

기부를 위해서, 또 기부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룹 대표는 다음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 문의할 수 있다:
adma@admadonbosco.org

“주님께서서는 기쁨으로 섬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내가 · 너에게
스승을 · 주겠다

도움이신 마리아 제9차 대회

파티마 2024년 8월 29일 - 9월 1일

등록이 시작됩니다

www.mariaauxiliadora2024.pt

ADMA 리스본 지회 - 활기차고 새로워지다

리스본의 ADMA 지회는 2023년 초에 평의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성모 성당에 모였습니다. 현 영적활성자인 아르투르 페레이라 신부를 포함하여 모든 ADMA 평의회원들이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20명의 평의회원과 3명의 손님, 손님 중 두 명은 본당 신부이며, 한 명은 전 영적활성자인 조앙 차베스 신부입니다.

ADMA 리스본 지회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44명의 매우 역동적인 지회이고, 지회를 활성화하고 협력하기 위해 매월 24일에서 가장 가까운 토요일에 평의회를 개최합니다. 제안된 안건은 일반적으로 관심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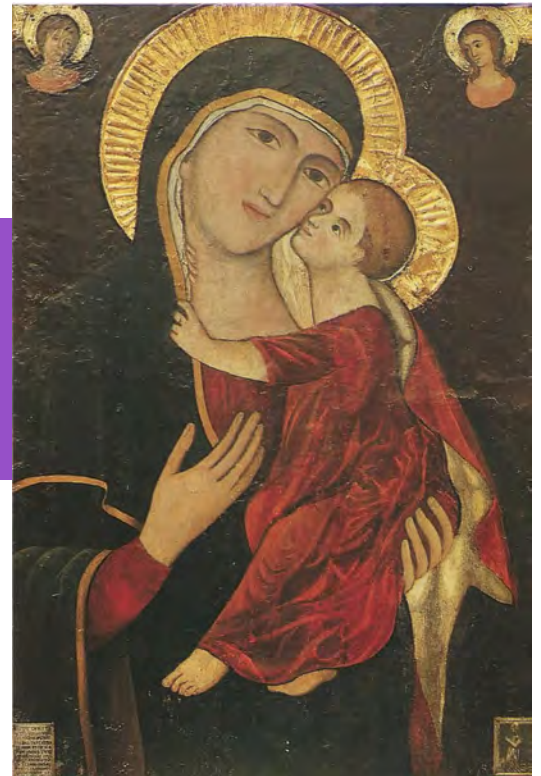
의견 공유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매월 모임을 통해 교황청 ‘고통받는 교회 돕기’(ACS)에 기부할 기금을 꾸준히 모아 오고 있습니다.

월간 기도지향

우리는 특별한 지향으로 전 세계 모든 Adma 회원들이
다함께 이 기도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에는 새로운 순교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일하는, 온 세계의 선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용기와 선교
열정이, 온 교회에 확산되게 하소서.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 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https://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